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5호 [루게 제2513호]

주체 107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음력 9월 1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은 세계가 경탄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존엄떨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 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단마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에히요에서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3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73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 밑에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

이로 이끌었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린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단 한번의 로선상차이나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온 세계가 경탄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존엄떨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에히요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령도와 당의 령도아래 우리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는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단마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축

이 채택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 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도이칠란드, 벨라리아, 로씨야에서 4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푸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선대수령들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셀레 리꺼푸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97년 10월 8일은 수령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새 우표들을 발행

조선에서 올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새 우표들(유음전지 1종, 개별우표 2종, 소형전지 1종)을 발행하였다.

유음전지의 우부분에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주체107(2018)년 4월 27일》이라는 글말이 새겨져 있다.

중심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담에 앞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판문점남측지역 《평화의 집》 방명록에 남기신 친필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회담에 앞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판문점남측지역 《평화의 집》 방명록에 남기신 친필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은 2018. 4. 27》이 모셔져 있다.

그 량열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판문점수뇌상봉기념식우표식비와 소나무를 반영한 우표들이 있다.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라는 글말과 통일을 향한 개별우표는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갈 운 거레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주체107(2018)년 9월 18-20일》이라는 글말을 쓴 소형전지와 개별우표도 있다.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9월평양공동선언》이 반영된 우표가, 량열에는 북남수뇌분들께서 오르신던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조선지도가 그려져 있다.

개별우표에는 《우리는 하나》라는 글말로 형성한 조선지도와 가사 《우리는 하나》가 반영되어 있다.

한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기념 우표첩 《우리는 하나》도 발행되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기상수문 및 수리공학부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기상수문 및 수리공학부 과학기술발표회가 22일과 23일 기상수문국에서 진행되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기상수문국,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연구사, 교원, 박사원생,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기상수문부문과 수리공학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발표회에는 기상관측과 예보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물자원 관리와 수력, 조수력발전건설에서 나

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130여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발표회에서는 《공강정보해석기술을 적용한 자연에너지열량체계개발과 응용》, 《갑실타빈출력의 최량화》 등의 논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중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도 있었다.

발표회기간 기상레이더기술과 조수력발전건설의 발전추세에 대한 강의들도 있었다.

본사기자

제22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제22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체육연구원, 조선체육대학, 국가과학원, 각지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 등 360여개의 단위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측정기재, 체육기자재, 체육의약품 및 영양제, 체육과학기술도서와 논문들을 비롯하여 1 400여건의 체육과학기술성과품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2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개막사를 김일국체육상이 하였다.



본사기자

재증동포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재증동포들이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훈춘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조선로동당을 존엄높고 강위력한 불멸의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기 위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짐같은 흥미의 정이 어린 태양의 꽃들이 조선로동당 마크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대열에는 훈춘시 중국

기업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놓여 있었다.

전시회개막행사에는 재증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과 훈춘시지부장을 비롯한 재증동포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부총영사와 훈춘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일군들 그리고 중국 관제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중국 세일명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총경리인 재증동포 양홍준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훈춘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피력하였다.

전시회가 세차례에 걸치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인 상봉이후 열린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더욱 깊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시회가 앞으로 조증친선을 두터이 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하면서 태양의 꽃 김일성화화와 김정일화화 훈춘시뿐 아니라 전세계에 더욱 만발하고 활짝 피어나기 바란다 고 강조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본사기자

조선통신사 창립 70돐 기념모임 진행

조선통신사창립 70돐 기념모임이 1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준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장, 김성훈 선전문화국 국장, 조선통신사 일군들, 간도지방 총련본부위원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통신사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었다.

허준만의장이 축하발언에 이어 최홍 조선통신사 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통신사가 이역땅에서 지난 70년간 맡겨진 통신보도활동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회세의 친출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통신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본사기자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진행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에 따라 산림협력분과회담이 22일 북남공동협력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과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과 단계적인 대책들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첫 사업으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이어 얼마전에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북남고위급회담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길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다.

이번 북남고위급회담을 두고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평양남북수뇌회담결과를 철저히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를 환영한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남북관계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적극 환영해나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프랑스의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이번 북남고위급회담의내용가운데서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올해안에 진행하기로 한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남고위급회담결과는 조선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북남의 눈에 띄우는 노력이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또 다른 진전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이번 북남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부동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느끼었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성실히 리행되어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힘차게 전진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북과 남 어느 일방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고 있다.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평화번영의 시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인 실천강령이고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며 판문점선언리행의 성과

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통일로 이어나가기 위한 통일강령, 호혜와 공리공평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민족공동번영선언,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협과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종식시켜 이 땅을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선언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북남공동선언들의 성실한 리행에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통일의 밝은 레일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감으로써 민족화합의 새 력사,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신기복

평양의 가을은 민족의 밝은 래일을 기약한다

뜻깊은 9월이 가고 10월도 저물어가고있다. 겨레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며 흘러가는 이해의 가을은 역사적인 9월평양상봉과 더불어 민족사에 잊지 못할 사변적인 가을로 기록되었다. 지금도 맑고푸른 평양의 가을하늘아래서 북남수뇌분들이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하고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풍요한 평양의 가을

우리 겨레는 가을을 사랑한다. 붉네, 여름내 땀흘려 지은 벼이삭이 머리를 수그리고 산과 들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계절이어서이다.

그러던 가을이 언제부러인가 기쁨과 랑만과 함께 리벌의 서러움을 더해주는 계절로 겨레의 가슴에 자리잡았다.

외세가 만들어놓은 민족분열의 장막 70여년.

가을철의 최대 민속명절인 추석(한가위)을 맞으면서도 두고은 고향과 혈육들을 그리며 한숨속에 눈물지어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마가들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랑잎이 필꽃 때면 함께 웃고 떠들던 혈육들의 옛모습이 추억의 배에 실려와 더욱 가슴을 미어지게 하던 이 땅의 가을들이었다.

그러나 뜻깊은 이해의 가을에 랑만은 기쁨의 웃음짓고 화해와 랑만에 넘쳐 민족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고있다.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평양에서 열리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행성에 베어리친 이래 북남관계는 더욱 활기있게 진전하고있다. 10.4선언발표 11월기념 민족통일대회,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북남철도협력과 도로 협력, 산림협력 등을 위한 분과회담들도 진행되었다.

북남산천리애 평화변영의 노래가 더 높이 울리고있는 이 뜻깊은 역사의 화폭은 평양의 가을이 가져다준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북남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 회담이 진행되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태어난 평양의 가을처럼 풍성한 수확을 겨레에게 안겨준 화해와 랑만의 가을은 일제기 없었다.

가없이 맑고푸른 평양의 가을하늘처럼 민족의 미래는 환히 열려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푸른 하늘, 대결이 없는 화해와 변영의 맑은 하늘이 삼천리와 우리 겨레를 포근히 감싸주고있다. 가을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계절이지만 평양의 가을은 위인이 안아오신것이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제인대통령에게 크나큰

삼천리가 기쁨과 화해로 뚫어번지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평양의 가을날이 하도 좋아서인가. 수확도 이만지만 크지않았다.

풍요한 이 가을은 더 좋은 래일을 예고하며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겨레의 머리위에 펼쳐주고있다.

풍요한 평양의 가을

우리 겨레는 가을을 사랑한다. 성대한 봄네, 여름내 땀흘려 지은 벼이삭이 머리를 수그리고 산과 들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계절이어서이다.

그러던 가을이 언제부러인가 기쁨과 랑만과 함께 리벌의 서러움을 더해주는 계절로 겨레의 가슴에 자리잡았다.

외세가 만들어놓은 민족분열의 장막 70여년.

가을철의 최대 민속명절인 추석(한가위)을 맞으면서도 두고은 고향과 혈육들을 그리며 한숨속에 눈물지어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마가들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랑잎이 필꽃 때면 함께 웃고 떠들던 혈육들의 옛모습이 추억의 배에 실려와 더욱 가슴을 미어지게 하던 이 땅의 가을들이었다.

그러나 뜻깊은 이해의 가을에 랑만은 기쁨의 웃음짓고 화해와 랑만에 넘쳐 민족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고있다.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평양에서 열리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행성에 베어리친 이래 북남관계는 더욱 활기있게 진전하고있다. 10.4선언발표 11월기념 민족통일대회,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북남철도협력과 도로 협력, 산림협력 등을 위한 분과회담들도 진행되었다.

북남산천리애 평화변영의 노래가 더 높이 울리고있는 이 뜻깊은 역사의 화폭은 평양의 가을이 가져다준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북남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 회담이 진행되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태어난 평양의 가을처럼 풍성한 수확을 겨레에게 안겨준 화해와 랑만의 가을은 일제기 없었다.

가없이 맑고푸른 평양의 가을하늘처럼 민족의 미래는 환히 열려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푸른 하늘, 대결이 없는 화해와 변영의 맑은 하늘이 삼천리와 우리 겨레를 포근히 감싸주고있다. 가을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계절이지만 평양의 가을은 위인이 안아오신것이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제인대통령에게 크나큰

삼천리가 기쁨과 화해로 뚫어번지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평양의 가을날이 하도 좋아서인가. 수확도 이만지만 크지않았다.

풍요한 이 가을은 더 좋은 래일을 예고하며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겨레의 머리위에 펼쳐주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 계시며 이야기를 나누신것도 수뇌회담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신기록》

남조선의 《노컷뉴스》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총 13회나 만남을 반복하며 20시간 가깝게 함께 보냈다. 평양을 방문한 문제인대통령은 과거 회담에 비할수 없는 파격적인 환대를 받았다.》고 전하였다.

두 수뇌분들의 우의와 신뢰가 지금까지 최대로 두터워지고 북남관계가 되돌릴수 없게 발전의 계도에 확고히 들어선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민족과 통일을 위하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넓은신 도량, 평화변영의 시대를 꿰뚫어 이어나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안아온것이다.

평양의 가을에 겨레는 《9월평양공동선언》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안았다.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북남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며 흘러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한것,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갈데 대한 문제 등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평화변영을 추동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다 담겨져있다.

남조선의 정당들과 각계에서도 김정은원수님의 통큰 결단이 구

체적인 실천적조치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9월평양공동선언》을 평화와 변영의 길로 나아가는 동력을 살린 선언, 신뢰와 믿음의 선언, 《한》반도평화를 활짝 열어제끼는 선언이라고 격찬하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도 《김정은위원장님이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고있다.》, 《력사의 아픔이 꽃길로 바뀔 그날은 꼭 오리라.》 등으로 경에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칭송하고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오르고있다. 4.27선언이 그리한것처럼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뜻깊은 조항들과 자자구구에도 민족문제를 자계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며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주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와 대범한 구상, 통큰 결단,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민족애가 질적 승배되어있다.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이 뜻깊은 상봉이 평화변영에로 지향해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온 겨레에게 다시한번 평화와 변영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9월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판문점선언리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문재인대통령과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데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온 장내는 물론 상봉을 지켜보던 북과 남의 우리 겨레, 전세계인이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터치었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에서 가장 감명깊게 안겨온것은 〈민족적화해〉, 〈민족의 운명〉, 〈민족의 승결〉, 〈민족의 힘〉 등 〈민족〉이라는 표현을 6차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사변이다.

전세계인의 시선이 백두산으로 쏠리고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서 나서는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환희와 격동으로 다시금 세차게 설레이었다.

누군들 북남관계에서 이런 날

나 사용하면서 민족중시, 민족공조의 의지를 굳건히 보여준것이다.》

《력사에 길이 남을 장엄하고 극적인 성공이다.》

《북과 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놓았다.》

《평화와 변영의 길로 나아가는 동력을 살린 선언》

《전세계인의 비범한 통일에국경론이 깃들여있는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눈부는 민족의 승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녀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어 보면볼수록 통일변영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것만같아 가슴을 높히게 한다.

북남수뇌상봉의 나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대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신것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더욱 추동해준 감동깊은 평양의 가을화폭이었다.

경기장바닥에 《백두》, 《한나》의 글밭이 새겨지고 《아리랑》의 노래선률속에 대형통일기가 경기장상공으로 오를 때 모두의 마음은 벌써 평화변영과 통일의 그날에 가있었다.

평양의 남녀청춘들, 학생소년들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문제인대통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에서는 화해와 단합의 아름다운 춤과 노래와 고마움의 진정성장바닥과 배경대에 련이어 수놓아졌다.

뜻깊은 판문점상봉의 순간순간들을 수록한 특화편집물이 4.27선언의 거대한 의의를 다시금 새겨주는 속에 경기장에는 삼천리강토에 세차게 태동하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더욱 차남쳤다.

공원이 끝나고 북남수뇌분들이 뜻깊은 연설을 하실 때 온 장내는 우렁찬 박수와 만세의 환희로 진감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자구구와 평화변영의 래일을 앞당겨주 8천만의 의지는 평양의 가을하늘을 넘어 온 행성에 베어리쳐졌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돛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저끝에서 《백두산아!》 하고 소리쳐 부르고 백두산에 대한 그리움, 통일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절절히 불러온지도 어언 반세기이상.

그러나 평양의 가을날에 겨레의 그 꿈이 이루어졌다. 북남의

수뇌분들이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것이다.

그날은 백두산의 날씨도 류달리 쾌청하였다. 구름 한점 안끼고 바람 한점 없이 따스한 해별이 내려쬐였다고 한다. 친변민화한 백두산에서 년중 이런 좋은 날씨는 찾아보기 힘들어 백두산도 북남수뇌분들을 맞이하여 온갖 아름답고 신묘한 자태를 드러낸것이라.

경에하는 원수님은 백두산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이시다.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하시며 힘겨울 때나, 기쁠 때나 백두산에 오르곤 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의 빛나는 정기는 백두산의 정기이고 그의 크나큰 담력도 백두의 그 담력이자 온 천하를 휘어잡는 역센 기상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 응좌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서여 산천을 부감하시고 함께 손을 높이 드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력사의 뜻깊은 화폭은 북남은 백두산에 시원을 둔 하나의 민족이고 자자구구와 평화변영의 새 아침을 열어준 백두산에서 밝아오게 되리라는 북남수뇌분들의 굳은 의지의 천명이었다.

북남의 수뇌분들은 친치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기도 하시었다. 북과 남의 인사들도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쓰라린 과거사를 씻어버리며 서로의 마음들을 하나로 정화시켜주는 친치의 맑은 물음 마시며 기쁨과 찬란을 금치 못하였.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백두산으로 달려가던 력사의 그날 새인은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자자구구의 새 력사, 북남이 뭉친 힘으로 평화변영의 활로도 함께 열어나가는 장엄한 새 력사를 보았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서여 산천을 부감하시고 함께 손을 높이 드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력사의 뜻깊은 화폭은 북남은 백두산에 시원을 둔 하나의 민족이고 자자구구와 평화변영의 새 아침을 열어준 백두산에서 밝아오게 되리라는 북남수뇌분들의 굳은 의지의 천명이었다.

북남의 수뇌분들은 친치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기도 하시었다. 북과 남의 인사들도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쓰라린 과거사를 씻어버리며 서로의 마음들을 하나로 정화시켜주는 친치의 맑은 물음 마시며 기쁨과 찬란을 금치 못하였.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백두산으로 달려가던 력사의 그날 새인은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자자구구의 새 력사, 북남이 뭉친 힘으로 평화변영의 활로도 함께 열어나가는 장엄한 새 력사를 보았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서여 산천을 부감하시고 함께 손을 높이 드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력사의 뜻깊은 화폭은 북남은 백두산에 시원을 둔 하나의 민족이고 자자구구와 평화변영의 새 아침을 열어준 백두산에서 밝아오게 되리라는 북남수뇌분들의 굳은 의지의 천명이었다.

북남의 수뇌분들은 친치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기도 하시었다. 북과 남의 인사들도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쓰라린 과거사를 씻어버리며 서로의 마음들을 하나로 정화시켜주는 친치의 맑은 물음 마시며 기쁨과 찬란을 금치 못하였.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백두산으로 달려가던 력사의 그날 새인은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자자구구의 새 력사, 북남이 뭉친 힘으로 평화변영의 활로도 함께 열어나가는 장엄한 새 력사를 보았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태양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태양이 있어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도 있다.

이해의 류다른 가을, 온 민족에게 기쁨과 화해를 더해주고 평화변영에로 달리는 민족의 기쁨과 장군의 위용도 천만산안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그날에 가있었다.

건축예술의 새 화원을 펼치시여

강국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비범성은 이 땅위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최근에 문을 연 삼지연관현악단 극장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신 건축예술의 화원에 피어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다.

극장이 건축양식은 예전이나 다름없지만 고품스럽고도 우아하게 안팎을 새롭게 단장하여 사람으로 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셈이다.

건축미로 보나 내외부의 요소 요소로 보나 그리고 공사속도나 질에 있어서나 탄복을 자아내게 하는 이 멋쟁이극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비범한 령도실력의 응결체이다.

건축은 하나의 예술이라고도 이른다. 건축물은 조화로운 건축형태와 공간에 장식, 색채, 조명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예술적수단들이 인입되고 높은 기교의 공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맞고 용도와 구색이 맞게 창조된 건축물을 조

형예술적으로 실현된 작품이라고 한다.

최근년간에 일떠선 수많은 건설물들은 착상으로부터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조형화와 예술화에 있어서나 기능적측면에서 완벽한 건축예술의 걸작품들이다.

조형화, 예술화, 녹색화가 실현된 70층살림집을 비롯한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로 조화를 이룬 려명거리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나라의 인재양성사업과 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하여 려명거리건설을 받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거리형성안과 조감도, 모형사관을 보시고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로 형성하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미래형거리를 구상하신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여러개의 살림집구획을 형성하고 매 구획들마다 특성이 살아나게 건물들을 앉히도록 하는것으로부터 초고층살림

집사이의 기반층을 하나로 려결시켜 상업구를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살림집건설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 지열냉난방체제를 도입하며 봉사시설들도 자연채광조건이 좋게 설계하도록 이르시었다.

려명거리건설에 기울으신 그이의 로고와 심혈,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인 초고층건축물들과 우아하고 특색있는 다층문화주택, 각종 봉사시설들과 학교, 유치원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는 회한한 새 거리가 짧은 기간에 일떠서게 되었다.

다기능화된 전민학습의 대전당, 주체건축예술의 상징으로 일컫는 과학기술전당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체적인 지도와 보살핌에 의하여 설계도 특색있고 시공도 완전히 새로운 공법으로 건설한 걸작품이다.

미래과학자거리, 류경안과종합병원, 룡라인민체육공원, 평양극제비행장 항공역사, 전국의 육아원과 예육원들, 은하과학자거리,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건설물들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건축가들과 전문가들은 대학을 새로 나오는것과 같다고, 건축분야에서 목표와 기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창조수법에서도 도식과 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이의 비범한 건축학적안목과 실력에 감복을 금치 못하였다.

비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도 승마장이라면 말과 자연미, 스키장이라면 눈과 신선미라는 종자를 쥐고 두루마기에 구두를 신은것과 같은 불일치를 없애면서 건축물의 내외부형성에 종자가 일관하게 관통되도록 하여 오늘날 같이 자기의 고유한 건축미를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축학적실력이 남은 창조물들이다.

물과 현대미를 종자로 건설된 종합적인 물놀이장인 문수물놀이장도 무려 110여차나 형성을 지도하고 무려 20여년은 지난 밤, 이른 새벽 현지에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때로는 물놀이장 모형사판을 보고 또 보시며 사색과

열정을 기울이신 그이의 정력적 로고와 세심한 지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관목있는 건축가의 한사람인 심영학선생은 《위대한 창조자의 지장인 그이의 비상한 창조력의 높이만큼, 무한대한 인민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건축예술수준은 비약적으로 올라섰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시대의 건축물들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상한 속도로 비약하며 발전하는 조건의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창조자의 손길아래 건설의 기적이 일어나고 시대의 표준이 되고 문명강국의 레일이 비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건축예술의 새 화원이 펼쳐지게 되었다.

조선을 방문하는 외국사람들도 《마식령수도》, 《조선수도》, 《평양수도》창조의 불길을 지켜 올리시고 거창한 대전설을 이끄시는 그이의 령도실력과 조건의 눈부신 발전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맥주는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하나이다. 《맥주문화》라고 할 정도로 식생활에서 각광되고 수요가 많은 음료이다.

우리 사람들도 여러가지 맥주를 즐겨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동강맥주》를 무척 좋아하는다. 외국사람들속에서도 호평이 높다.

하다면 《대동강맥주》는 어떻게 고유한 향미와 품위를 이어나가고있는것인가.

인민들의 식생활문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언젠인가 평양에 맥주공장을 하나 더 건설하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면서 공장을 앉힐 부지도 정하여주시고 공장이름도 친히 《대동강맥주공장》으로 달아주시었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맥주공장건설을 받기하시고 원료문제해결로부터 생산과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하시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공장건설은 한해 남짓한 동안에 계속되고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체91(2002)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동강맥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공장을 찾으시고 한동안 전경을 둘러보신 그이께서는 이어 생산현장을 돌아보시었다. 맥주생산시설들과 설비들의 가동실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신 그이께서는 맥주공장에 대한 평가는 맥주맛을 가지고 하는것이라고 하시며 대동강맥주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이 어떻가고 물으시하시었다.

해당 일군들로부터 청년들이나 로인들이나 할것없이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자신께서 맛보았는데 아직 질이 그리 높지 못하다고 하시며 맥주맛을 높이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하

여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그러시고는 이 공장에서 맥주의 질이나 량을 놓고 대단하다고 여기고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민들을 모르는것이라고 나무람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량적으로 많이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고, 맥주의 질을 높이는것이 기본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대동강맥주는 오늘날이나 레일이나 맛이 같아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신 그이께서는 보리와 호프를 비롯한 원료보장문제 등 공장의 전방과 관리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면서 앞으로 공장을 잘 관리운영하여 맥주를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할때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그날 병포장현장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맥주병을 손에 드시고 살균온도도 가늠하여 보시고 살균을 잘해야 오래 두고 마실수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하루 병맥주생산량도 해아려보시고 발효공정의 능력이 딸린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그 공정을 한계될 더 늘려 생산량을 빨리 늘이도록 할때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오랜 시간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맥주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이는데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인민들의 레일의 생활까지 담보할수 있게 되면 후날까지 내다보고 모든것을 살게하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인민들에게 차례질 청량음료 하나에도 깊은 관심과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핌에 의하여 《대동강맥주》는 맛 좋고 인기있는 맥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명예롭게 깃든 자연



김성희

본사기자 리 설

나도 건설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주체101(2012)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으시었다.

건설장의 곳곳을 다 돌아보시며 건설 시공과 설비문제 등 연구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신 그이께서는 주인들이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건설물의 질은 올라가게 되어있다고 하시며 유선중앙연구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산원일군들

인것만큼 시공하는 사람들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한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산원일군들이 고맙다고 인사드리자 그이께서는 고맙기는 뭐가 고맙겠는가, 나를 손님으로 생각하고 생산활동을 편리하게 할 뿐 아니라 몸차림을 풀뉘이게 해주어준다.

최근에 평양에서는 《전국신발전시회—2018》이 열렸다. 제품전시회와 과학기술발표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전시회에는 신발생산과 관련된 60여개 단위에서 내놓은 940여종에 3만 1000여점의 제품들이 출품되고 8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자료들이 제출되었다. 전시회는 전국의 신발생산단위에서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가 실현된 신발들을 출품했으므로 하여 이채를 띠었다.

특히 천연가죽과 합성가죽 등으로 남녀별, 나이별특성에 따르는 신발들을 제작하여 내놓은 완산구두공장, 평양구두공장의 제품들이 인기를 모았다.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된 축구화, 정구화, 롱구화, 배구화를 비롯한 체육신발은 종류별특성을 살리면서도 접착새기가 매우 높아 전국대회군중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물론 각지의 체육애호가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형미학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신솔부분에 그물천을 띠며 평양신발공장에서 제작한 새형의 천연발들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후 지난 기간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은 강력한 인민의 독립국가로 건설되고 강화되었다고 격찬하였다.

베니스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70년간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날은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발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호평받는 명제품을 보며

신발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필수소비품의 하나이다. 사람들에게서 신발은 외부적작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며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편리하게 할 뿐 아니라 몸차림을 풀뉘이게 해주어준다.

최근에 평양에서는 《전국신발전시회—2018》이 열렸다. 제품전시회와 과학기술발표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전시회에는 신발생산과 관련된 60여개 단위에서 내놓은 940여종에 3만 1000여점의 제품들이 출품되고 8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자료들이 제출되었다. 전시회는 전국의 신발생산단위에서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가 실현된 신발들을 출품했으므로 하여 이채를 띠었다.

특히 천연가죽과 합성가죽 등으로 남녀별, 나이별특성에 따르는 신발들을 제작하여 내놓은 완산구두공장, 평양구두공장의 제품들이 인기를 모았다.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된 축구화, 정구화, 롱구화, 배구화를 비롯한 체육신발은 종류별특성을 살리면서도 접착새기가 매우 높아 전국대회군중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물론 각지의 체육애호가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형미학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신솔부분에 그물천을 띠며 평양신발공장에서 제작한 새형의 천연발들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후 지난 기간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은 강력한 인민의 독립국가로 건설되고 강화되었다고 격찬하였다.

베니스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70년간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날은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발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성새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여러 나라 인사들이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벌려 마침내 1948년 9월 9일 국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인민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사회체제를 마련하였다.

지난날 세계적으로 뒤떨어지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조선이 공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솟아올라온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로제야자유민주당 위원장은 인민정권이 수립된



본사기자 김철진



삼지연에서 바라본 백두산

삼지연은 공화국인민들 속에 잘 알려져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세계의 못이 가지런히 있다 하여 삼지연이라고 부른다.

삼지연은 오늘의 삼지연 부근에서 북쪽으로 흐르던 강이 약 100만년전에 백두화산과 그 주변화산이 분출할 때 땅속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 막혀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삼지연은 물이 맑고 호안이 백사장으로 되어있으며 번두리에는 이갈나무, 자작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는 울창한 원시림이 바다처럼 펼쳐져있어 그 경치는 참으로 장관이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삼지연은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일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제일가는 명승지의 하나라고 교시하시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삼지연은 서로 뿔수 없이 이어져있는 항일혁명전통을 전하는 뜻깊은 고장이다.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놓여있던 수년의 세월 백두

산은 민족의 명맥을 지켜주는 성산으로 더욱더 겨레의 가슴깊이 뿌리내리었다. 겨레는 백두산에서 울려오르는 항일대전의 총소리에서 해방의 아침을 그려보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28(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무산지구에 진출

삼지연의 통일노를

하시던 길에 이 호수에서 잠시 휴식하시면서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시다. 판문점 수뇌상봉때의 《도보리산책》을 떠올리게 하는 이 화폭은 온 겨레와 세인의 이목을 끌게 한 평양수뇌상봉의 명장면중의 하나이다.

평화변영의 시대가 펼쳐진 2018년에 백두산에 통일 의 새 역사가 새겨졌듯이 삼지연과 조국통일은 깊이 연관되어있다.

어제날 항일선열들이 피로써 찾은 조국은 갈라진 두 강토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의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제인 대통령과 함께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그 결심으로 삼지연을 찾으시어 뜻깊은 오찬도 마련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 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

연의 못가에서 산책하시며 환담을 나누시던 역사의 화폭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판문점 수뇌상봉때의 《도보리산책》을 떠올리게 하는 이 화폭은 온 겨레와 세인의 이목을 끌게 한 평양수뇌상봉의 명장면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못 잇을 사연을 간직 한 삼지연이 오늘은 절세위인의 통일령도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더욱 뜻깊은 명소로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이였다. 해방된 조국강산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지던 그 나날 비통함을 금치 못하던 투사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삼지연에 새겨진 오늘의 뜻깊은 화폭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삼지연에 통일노를 이 비겼다고 기쁨의 탄성을 올릴것이다.

투사들의 넋민, 민족의 소원을 안으시고 조선반도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삼지연은 소중한 간직되어있다.

그러시던가. 역사에 길이 빛날 2018년 이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화해의 불을 지피라고 남녘에 파견해 주신 예술단도 삼지연관련 악단이다. 온 남녘땅에 통일경향을 일으키는 예술단. 이제는 북남의 온 겨레가 다 알고 사랑하는 관현악단의 이름을 따름이던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었는가.

백두산의 넋과 슬기로 분렬된 이 나라를 하루빨리 통일번영하는 강국으로 일떠세우실 크나큰 응징이 아니었겠는가.

절세위인께서 통일사절로 파견해 주신 삼지연관현악단의 가수들이 남녘관중들 앞에서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비롯한 가요들을 열창할 때 민족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되어가고있었다. 그 통일노레소리 높이 울리는 속에 겨레는 북남의 화해와 평화의 향기 그윽한 평양의 가을을 맞고있다.

북남관계에서 언제나 따뜻한 봄과 풍성한 가을만이 있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마음은 간절하다. 그 소원, 그 희망 안고 미래를 향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북남의 겨레에게 성스러운 삼지연은 계속 힘과 소무를 안겨주리라.

본사기자 한일혁

군사분야의 합의서리행을 위한 의의 있는 첫걸음

지난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군사분야의 합의서가 조인되었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북과 남은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관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관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리행하기 위한 사업의 첫걸음으로 지금 북과 남은 판문점 공동경비지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나가고 있다.

돌아보면 판문점은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결로 흐르는 공기마저도 팽팽한 최대의 열점지역이었다. 지난 시기 판문점에서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한순간에 전쟁집경으로 몰아넣은 판문점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쌍방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사태도 발생하였다. 하여 판문점은 분렬과 대결의 상징으로, 군사적진장상태가 항상 최고조에 달해있는 위험천만 한 지역으로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판문점이 이곳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의 채택발표로 민족적화해와 통일, 평화변영의 상징으로 되었으며 평양수뇌상봉에서 채택된 《9월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관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리행해나가는 길에서 중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가고있는 것이다.

전쟁과 대결이 없는 평화의 락원에서 살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은 물론 국

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이며 북과 남이 뜻과 마음을 합쳐 열여놓은 역사의 새시대는 지금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가 적극적으로 리행되어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의 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는데 북남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평화보장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현 정세 흐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행동조치들을 완전히 중지하고 정세안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김철민

재미동포신문 북남관계개선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19일 북남관계문제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미국이 《5.24조치》 해제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승인타령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참을수 없는 비열한 처사라고 밝혔다.

남조선은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이 크게 진전하

고있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외세의존사상이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이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주인공은 의세가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이다.

민족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추동하여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5.24조치》를 해제하고 북남공조를 이루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변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맹은 떠나지만 민족은 영원히 함께 한다.

본사기자

무력증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참여연대가 22일 국방부의 무력증강계획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12일과 19일 국방부가 그 무슨 《안보위협》

에 대처하여 기동함대, 항공사령부창설과 《SM-3》요격미사일도입을 추진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평화정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

는다고 하면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반되는 무력증강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논평은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야합과 망동으로 최후 발악하는 자유한국당》

남조선신문 강조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16일 《야합과 망동으로 최후발악하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이라는것을 추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생존이 불가능한데로부터 보수세력들을 끌어모아 연명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까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 개혁이란것이 있어본적 없으며 구태를 반복하며 발악적으로 추진하는 야합만 있었을뿐이라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자유한국당》이 개혁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야합만 회복하고있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다른 보수야당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해 《다음 총선거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 《최산대상》이라고 맹렬히 비난한 리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가로막아오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야

기한 당이며 악역의 소굴이다. 민심으로부터 정치적사형 선고를 받은지 오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나 살아보겠다고 야합과 망동으로 발악하고있다.

침몰하는 남조선에 같이 올라갈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지만 그렇다고 침을 뱉고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올 일은 결코 없을것이다. 민심의 저주속에 악제로 락인된 《자유한국당》의 앞길에는 해산만이 있을뿐이다.

민족의 평화와 변영, 통일의 의지와 민족의 민주주의적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을 자리는 없다.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망언, 망동은 해체와 파멸을 재촉할뿐이다.

자기 무덤을 깊이 파고있는 《자유한국당》을 민심은 더욱 철저히 심판할것이며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우파조정당, 반평화조정당, 반통일반역정당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것이다. 본사기자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언론들, 전문가들과 일부 당국 관계자들속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일련의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러한 주장들을 보면 지난 시기 핵문제해결에서 고 정적시화로 되어온 《신고-검증-폐기》 방식이 아니라 《단순폐기-검증》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7일 핵무기전문가인 미국의 한 대학 명예교수는 남조선의 연세대학교에서 한 특강에서 상호성 미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 검증에 집착하면 비핵화가 마다된 골목으로 몰릴것이라고 하였다.

남조선의 외교당국자도 9월말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전통적인 비핵화과정과 순서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사할 동검증프로세스(공정)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게 초반에

나와야 하나나 하는 문제가 이번에는 다를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에도 그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처음부터 핵무기무검증을 요구하면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지난 시기의 《신고-폐기-검증》이 아니라 핵신고를 미루고 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른바 《단순폐기-검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한편 북의 비핵화도 다른 거레들과 마찬가지로 《주고 받기》가 핵심이며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협상이 실패할수 있으므로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이 취한 조치들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일본의 조선문제전문가인 도쿄대학 명예교수와

다는 1일 어느 한 토론회에서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하여 《북조선의 핵실험중지와 대북간담도미사일발사 시험금지 등에 맞게 미국은 《한》 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북조선에 대한 제재도 중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논의가 벌어지는 속에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면서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방법으로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9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 중국, 러시아사이의 3자회담에서는 조선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이며 정치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조선반도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

은 높이 평가하고 호상우려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미, 북남사이의 협상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였다. 계속해서 3자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과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면서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용한 조미가 동반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공동된 인식을 가지였다고 표명하였다.

특히 공화국이 의의있는 실천적인 비핵화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주목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에 대 조선체제의 조절과정을 가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단독제재를 반대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라영진

미국이 북남관계개신 방해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3일 평화정몽문본부의 성원들이 인권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의 흉상에 불을 지르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맥아더의 흉상앞에 《미국을 승인 필요없다. 신식민주의 폐기하라.》는 구호가 쓰여진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흉상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본사기자

미국의 북남관계개신 방해책동을 규탄

그들은 격문을 통해 미국이 남조선을 신식민주의로 여기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력대 《정권》에 대한 간섭책동을 통해 남조선의 민주화와 인권을 짓밟아왔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미국과의 불평등한 종속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재미동포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행위를 규탄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은 20일 시사평론가인 재미동포 김중산이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행위를 규탄하여 쓴 글을 실었다.

글은 최근 미국이 《5.24조치》 해제문제와 관련하여 저들의 승인이 없이 남조선

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남조선에 대한 주권침해이고 내정간섭행위라고 하면서 글은 미국이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남조선에 대한 주권침해이고 내정간섭행위라고 하면서 글은 미국이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벌여놓은 그 무슨 《쇄신과 변화》,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내준 《대통합》 놀음이 만사람의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은 《인적쇄신》의 칼자루를 쥐었다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정식내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는것을 공표하였다. 《당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인 김병준으로부터 《인적쇄신전진》을 위임받은 전원책을 비롯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것들은 명망가정치를 없애야 한다. 당내에서 일체 파벌을 없애겠다. 《물갈이》에서 누구도 레의로 뿔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보수단일대오》, 《바른미래당의원들을 포용하겠다.》고도 하고있다.

권력에 미친 정치시절부리, 극우보수패거리들이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벌여놓은 또 하나의 추악한 정치판대극이 아닐수 없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인적쇄

신》 놀음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저들에게 쏠린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모면하기 위해 《처절한 냉성》, 《책임》을 떠들며 외부성원들을 끌어들이 《쇄신과 혁신》을 부르짖었던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었다.

하지만 권력에 환장하고 정치적 리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당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것들은 명망가정치를 없애야 한다. 당내에서 일체 파벌을 없애겠다. 《물갈이》에서 누구도 레의로 뿔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보수단일대오》, 《바른미래당의원들을 포용하겠다.》고도 하고있다.

그렇게 되었으면 옹당 자진해체하여야겠으나 첼면파하기 그지

없는 원내대표 김성래를 비롯한 《자유한국당》것들은 벼를 짚는 《당혁신》을 해야 한다. 《맹진 수구보수정당》으로 락인되고있는 당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아무런 《정권》 시기 청와대정적정장을 하던 김병준을 끌어다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냈으며 이제는 《인적쇄신》을 담당

서는 변절과 배신을 밥먹듯 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전보다 더한 극우보수팔통집단, 반통일무리가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변한것이 아닌가.

이런 정취추몰, 대결만나들이 주동이 되어 《인적쇄신》을 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이전보다 더한 극우보수팔통집단, 반통일무리가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변한것이 아닌가. 더욱 경악할것은 이자들이

《보수대통합》을 위해서는 박근혜의 탄핵을 결사반대한다며 매일 같이 서울 네거리에 뛰쳐나와 란동을 피우다 못해 《쿠투라 령을 내려야 한다.》, 《쿠투라로 빨강이들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고아대며 초불민심에 정면돌격한 《태극기부대》망종들까지 끌어들이는 놀음을 벌리고 있는것이다.

사실들은 《자유한국당》이 벌려놓은 《인적쇄신》, 《보수대통합》 놀음이 북남관계를 비롯하여 민주개혁세력의 모든 진보적활동들을 가로막고 파괴하며 남조선사회를 리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보다 더 험악한 민주와 통일의 불모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적이며 모략적인 책동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매국과 반역, 부정부패를 체질과 생리로 하는 극우보수패거리의 본색은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 기만적인 광대놀음에 더는 속지 않을것이다. 김영범

본색은 변할수 없다

어제날의 친구도 마구 물어뜯는 추악한 파벌싸움만 벌여놓고 입만 벌리면 《라이세력척결》, 《박근혜탄핵반대》를 췌쳐대고 동족대결과 반통일에 광분하며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변변스러운 물골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6월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었다.

그렇게 되었으면 옹당 자진해체하여야겠으나 첼면파하기 그지

다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는 것까지 내운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 《보수대통합》 짓거리를 경멸과 조롱의 눈초리로 지켜보고있다. 필성부른 나물은 떡잎부터 안다고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라는 김병준이나 《전권》을 쥐었다는 전원책을 비롯해서 《인적쇄신》을 한다는 작자들 자체가 하나같이 정치적야망을 위해

의 럼방제통일방안은 남조선의 《지옥화》 하기 위한것이라고 악담을 퍼붓다 못해 공화국의 존엄과 제도까지 감히 모독한 대결광신자이다. 이런 정취추몰, 대결만나들이 주동이 되어 《인적쇄신》을 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이전보다 더한 극우보수팔통집단, 반통일무리가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변한것이 아닌가. 더욱 경악할것은 이자들이

더욱 경악할것은 이자들이

겨레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김광혁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회장과 그의 대담—

지난 6월 28일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이 새로 설립되어 공화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얼마전 기자는 김광혁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회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이번에 새로 설립된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의 사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었으면 한다.

김광혁: 우리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의 기본사명은 한마디로 말하여 국내와 해외로부터 가치있는 역사자료와 유물, 문화, 자금을 기증받아 민족유산의 발굴과 고증, 보존관리 등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하나의 피를 이어받은 단군의 후손들이다.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그가 단군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자각과 의무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기금은 겨레에게 그 자각과 의무감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며 기증자들의 수고와 노

력을 용담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명예를 지켜주고 널리 소개·전파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우수한 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잘 보존관리할 때 국제사회의 정신적, 물질적재부는 더욱 풍부해질 것이며 현대문명에 대한 개념이 인간의 본성에 맞게 정립되어 세계의 조화로운 지속적발전을 추동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유산을 존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인류의 다문화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비정부단체들, 외국의 개별적인사람들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 기금의 중요한 사명이다.

기자: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의 규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가?

김광혁: 8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는 규약에는 기금의 총칙, 조직기구 등 기금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기금은 자기의 돈자리와 기구체계를 가지고 독자적

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이며 기금의 법적주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이다.

기금의 최고결정기관은 리사회이며 기금사업에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서기국이 맡아하고 있다.

기금은 국내와 해외에 상설 또는 비상설로 조직된 기금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며 해외에 상주하고있는 공화국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들에게 본 기금의 현지대리인 또는 고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발급한다.

기금은 기부자들에게 기증증에 따라 중서를 발급해주고 조선의 명승지, 역사박물관, 역사유적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 등 다양한 형식의 평가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것으로 보수복원한 역사유적의 편리한 장소에 기부자의 표식판을 세워주며 국보적의가 큰 유물들을 많이 기증하였을 경우에는 기증자의 명의로 유물전시회를 조직해주고 전시회가 끝나면 박물관의 일정



한 구획에 기증자의 이름으로 유물을 따로 전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우대도 적용된다.

기금활동에 필요한 대외홍폐지를 개설하고 대외외국인 소개신물들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기자: 기금이 설립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 반향은 어떠한가?

김광혁: 열의가 대단하다. 국내와 해외에서 벌써 여러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기부의사를 표명해나섰다.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해외에서 살고있는 여러 동포들은 각이한 역사적시기들에 해외로 유출된 귀중한 유

물들을 되찾아오며 선조들의 잃어진 역사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기금사업에 나름대로 적극 기여할 의향을 표시한 확성들을 보내오고 있다.

해외동포들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외국인들속에서도 지난 시기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파괴, 약탈, 도난당한데 대하여 진정으로 가슴아파하면서 기금사업에 도와나설 의향을 표명하였다.

기자: 해외의 동포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김광혁: 우리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은 이제야 첫걸음을 뒀는데 지나지 않았지만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언젠가 뜨거우 애국심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빛내이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할것이며 헌신과 성실한 노력으로 인류의 문명발달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길것이다.

우리 기금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주고있는 국내와 해외의 여러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나지막한 고개우에 올라서니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농장마을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왔다.

산기슭의 과일나무들이며 황금익삭 설레이는 벼바다. 빨간 토기와 엮은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과 훌륭하게 건설된 공공 건물들...

이것이 바로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이다.

우리가 리소재지에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흥겨운 농악소리가 들려왔다.

마중나온 농장일꾼이 오늘은 휴식일이어서 농장원들이 리문화회관에서 흥겨운 농악무를 펼쳐놓았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갔다.

민족옷을 입고 장고, 장새, 북을 비롯한 민속악기들로 노래를 연주하며 춤을 추는 농장원들, 상모를 땀방울리며 마당이 좁다하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이채를 띠었다.

멋있었다. 저절로 흥이 나고 어깨가 들쭉들쭉하였다.

우리가 농장원들이 펼쳐놓는 흥겨운 춤가락들을 즐겁게 바라보고있는데 리의 한 일꾼은 자기 마을의 농악무는 군적으로도 소문이 났다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농악무야말로 그대로 우

리들의 생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 부족함이 많았던 우리 농장이 오늘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될수 있는것도 저 농악무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농악무로 이름난 마을

농장에서 농악무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였다고 한다.

자강도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거리와 마을을 훌륭히 꾸려놓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자신들을 자책하며 일터였다.

정작 마을꾸리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통이 큰 일판을 벌려놓고보니 부족한것이 너무나 많았다. 적지 않은 농장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꽤 해낼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심신이 없어 하였다.

리의 일꾼들은 온 농장이 노래와 춤으로 들쭉들쭉하게 할것을 결심하고 오랜 역사유적이 있는 농장의 특성에 맞게 농악무를 할것을 말하게

나섰다. 우리는 협동법에 끝없이 올려가는 농악소리를 들으며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될 토성리의 밝은 매일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이들은 농장원들에게 농악무를 배워주는 한편 각종 악기와 의상, 소도구 등을 일식으로 마련하는 사업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고 휴식일과 명절날이면 체육경기를 전후로 수십명이 출연하는 농악무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농장원들로 하여금 우리의 민족적풍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것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언제나 량만과 회월에 넘쳐 살며 일하니 농업생산에서도, 농장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나날에 농악무는 이곳 농장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한부분으로 소중히 자리잡게 되었다.

참으로 이곳 농장원들에게 있어서 농악무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려는 의지와 희망찬 래일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혀주는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였다.

우리는 협동법에 끝없이 올려가는 농악소리를 들으며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될 토성리의 밝은 매일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함금숙



본사기자 박철남

특색있게 꾸려진 동물생태홀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자리잡은 자연박물관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안겨주는 특색있는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자연박물관에 동물생태홀과 어린이 학습 및 체험실이 새로 꾸려져 이곳을 찾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자연박물관 4층에 새로 꾸려진 동물생태홀에는 열대산림초원의 다양한 동물상을 펼쳐져있는데 단 150종에 260여점에 달하는 박제품 및 동물 모형들과 수많은 식물표본들이 박제동물구역, 해양생태체험구역, 육지생태구역에 전시되어 있다.

열대산림초원은 열대산림대와 반사막대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열대성초원지대를 말하는데 일명 싸반나라고도 부른다.

싸반나는 년강수량, 가물철과 장마철의 기간에 따라 높은 초본싸반나, 전형적인 싸반나, 사막성싸반나로

나뉘어지며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 북아메리카에 위치하고있는데 그 자연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다른 지역들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동물들이 많고 동물들사이의 생

활고리가 매우 다양한것이 특징적이다.

참관자들은 동물생태홀의 여러 구역들에 있는 반경화 및 박제품, 동물모형, 식물표본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



실체험으로 산지식을 쌓아간다

자연박물관은 여러 과학분야의 실험표본들과 가치있는 학술자료들을 다양한 전시수단과 생동한 진형형식, 흥미있는 표현방법들을 리용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주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자연박물관에 새로 꾸려진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체험은 개개의 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한

실천적이며 생활적인 인식이 다. 하여 체험은 소극적이거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한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 2에서는 다양한 직관물들과 실험표본, 채집도구, 여러가지 유희기재 등을 리용하여 직관교육 및 실험교육을 진행한다. 화석찾아보기, 나의 동물친구, 동물과의 힘겨루기, 동식물알아맞추기, 우주탐험 등 여러 구역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실지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하였다.

신의 동작으로 직접 찾아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배운지식을 더욱 다지도록 하였다.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벽에 설치된 액정TV에서는 우주여행을 내용으로 한 다매체연결물이 방영되고있었다.

최국철 자연박물관 학술연구실 연구사는 끝이 없는 학생들의 영동한 질문과 대답속에서 앞날의 역군으로 자라나는 행복동아들의 밝은 모습과 조국의 통일번영할 래일을 보았다며 하루일을 마치면 수많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느라 목이 쉬는 때도 있지만 자신도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한 몫 한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여기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은 실체험속에서 산지식을 쌓아나가는 배움의 집이었다.

우리는 서로 좋아라 웃고 떠들며 논쟁을 벌리는 어린 학생들의 명랑한 모습에서 공화국의 창창한 래일을 엿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그중에서도 화석찾아보기는 각이한 지질시대에 살았던 동식물들의 화석들을 도구들을 리용하여 직접 발굴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화석에 대한 생동한 교양을 안겨준다.

여기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실지 자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진행—

얼마전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는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열렸다.

《특색건재와 에너지를 절약한 건재, 지능건재, 건축조명 및 불장식의 주제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마감건재의 국산화, 다양화, 다중화와 건축조명의 주제화를 실현하는데서 이룩된 수백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와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백두산건축연구원 건재연구소, 천리마타일공장, 대동강건재공장 등에서 출품한 건재제품들과 특색있는 불장식제품들이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건축재료연구소에서는 오늘날 특색건축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개발한 지붕복합용담수 및 뿌리차단기술을 내놓아 특색있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방의 경량화와 식물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주면서도 식물의 뿌리로부터 건물지붕의 방수구조를 보호해주는 이 기술은 특색건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나서고 있다. 이 기술만이 아니라 건축재료연구소의 기술자들이 개발해낸 여러 기술성과자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훌륭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향과 목표를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였다.

전시회에는 지방에 혼한 원료와 연료를 리용하여 생산된 제품들도 많이 전시되었다.

그중에서도 평양마감건재품공장에서 출품한 금속격자천정재는 간단한 설치와 적은 원가, 특색있는 효과로 하여 이목을 끌었다.

건설에서 총막밀면에 배치되는 각종 기술망요소들을 가리우면서 천정장식효과를 높여주는 이 금속격자천정재는 이미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과 평양화초원구소를 비롯하여 여러 단위에 도입되어 그 질과 외형미에 있어서 결코 다른 나라의 제품에 못지않는다는 호

평을 받고있다. 자체의 원료와 기술로 생산한것으로 하여 원가를 절약하고 년간 많은 경제적효과를 보게 하였다는 데도 이 제품의 우월성이 있다.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시한 흑연천구천구로에서 백세멘트를 생산하는 공정은 나라에 혼한 석회석과 무연탄, 흑연을 리용하여 건설에서 많이 리용되는 백세멘트를 생산하는것으로 하여 그 경제적효과성과 가치가 대단히 큰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시기 백세멘트의 생산에서는 중유를 연료로 리용하게 되어있었다.

리광성 조군실원산공업대학 강자장은 다른 나라의 연료에 의거한 백세멘트생산공정을 흑연을 리용하는 공정으로 바꿀 연구목표를 내세

우고 수년간에 걸치는 실험생산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자기 지방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백세멘트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오늘

은 자체의 힘으로 생산을 진행하고있다.

전시회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힘을 믿고 고난과 시련을 두려움없이 맞받아나가는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념과 열정이면 그 어떤 과학의 요새도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건축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공화국의 건축발전

에 적극 기여하고 마감건재의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는 대동강의 양어기지

얼마전 대동강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는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을 찾은 우리는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그물우리양어작업반 반장을 만났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조종사가 모든 조종체계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조종하고있는 종합조종실에 들어섰다.

자동먹이공급체계, 실시간

수질측정체계, 야외조명관리체계, 감시체계로 이루어진 종합조종체계는 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게 물온도, pH, 산소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물우리별 먹이공급량과 공급회수, 공급시간은 물론 나비등, 불량상 등을 자동적으로 조종하게 되어있었다.

우리는 먹이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먹이공급체계를 마련해놓고 양어에서 실리를 보장하고있는 양어장의 종합조종실내부를 다시금 새삼스러울 정도로 보았다.

우리는 종합조종실, 먹이보관창고, 휴게실 등이 있는 기본틀을 지나 그물우리양어 못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작업반장은 지난 기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막아서는 예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이악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대동강에 수백㎡에 달하는 여러개의 이동식그물우리를 새로 제작설치하고 수만마리의 새끼물고기를 길러 물고기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데 대해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앞으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겠다고 결의다지는 작업반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생산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할 평양시민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날로 풍부해지는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

11개 대상을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

최근 공화국의 민족유산 보호지도국에서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반영한 11개 대상을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하였다.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국가적인 정책을 받들고 지도국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적극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소년농악무, 금강산전설, 강감찬전설, 고려약음식료법, 고려약물절집, 장교제작기술, 건맹이젓담그기를 비롯한 8개 대상이 국가비

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예로부터 민간무용으로 전해오는 농민들의 흥겨운 농악무를 아이들도 함께 추어오던것이 소년들의 독자적인 상모춤으로 발전된 소년농악무는 기본형상수단인까지 절음과 다리굴신, 량어깨를 엮바꾸어 혼들기 등 각이하고 제치있는 춤동작들로 구성되어있다.

금강산전설은 선조들의 재능과 지혜의 산물로서 반침략애국투쟁, 봉건관료배들을 비롯한 온갖 착취자들을 대항 풍자조소, 우리 인민들의 미풍양속과 생활세

태 등 여러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고려약재와 여러가지 음식감을 잘 배합하여 만든 음식으로 건강을 보호하고 병을 예방치료하는 전통의 술의 하나인 고려약음식료법도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있다.

고려약물절집, 민족락악기인 장교제작기술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문화재부이다.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는 영채김치만들기, 념뽕비단짜기, 갑자농마리용습

이 등록되었다.

영채김치만들기는 함경북도 길주군, 명천군을 비롯한 북부지방사람들이 자기 지방에서 자라는 영채를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조선김치의 다양성과 특색을 잘 보여주고있다.

평안북도 념뽕군에 혼한 뽕나무에서 뽑은 실로 비단천을 생산하는 로동생활습을 반영하고있는 념뽕비단짜기는 고대시기부터 발생발전하여온 우리 나라의 높은 비단짜기기술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가치가 있는 비물질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금강산의 귀면암

항구도시 원산에서 푸른 동해를 왼쪽에 끼고 금강산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느라 흰 물갈기를 흘리며 넘실거리는 바다와는 대조를 이루는 잔잔한 시종호가 펼쳐져있다.

거울같이 맑고 언제나 잔잔한 호수위에 바다새들이 날아와 떠돌면서 즐겁게 우짖고 술발과 백사장이 한데 어울러 절경을 펼친 이곳의 풍치는 예로부터 동해안의 자랑으로 불리운다.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꾸려져있는 이곳은 죽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시종호와 감탕치료

시종호에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감탕치료를 위한 휴양소, 료양소와 해수욕, 담수욕을 할수 있는 장소들, 낚시터, 보트장 등 여러 문화휴양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바다자리호수인 시종호는 면적이 2.94km이며 바닥에는 4~5m두께의 감탕이 깔려있다.

감탕에는 류화물, 칼시움염, 마그네시움염, 결정수화물 등이 적합하게 섞여있어

여러가지 원인의 관절염, 간질환, 만성담낭담도염,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만성대장염, 위상 및 수술후유증, 신경계통질병과 부인병들에 대한 치료에서 효과가 크다.

료양소에서는 시종호의 이 감탕을 리용하여 병치료를 하고있다.

귀중한 자연치료자원의 하나로 널리 쓰이고있는 시종호의 감탕색은 검은 재빛이며 냄새는 없다.

시종호감탕치료방법으로서는 욕조에 일정한 량의 감탕과 물을 넣고 온몸 또는 일정한 부분만을 잠그는 방법, 전기치료, 초음파치료, 광선치료와 병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통 42~50℃로 덥혀서 쓰지만 그대로 쓰기도 한다. 치료는 한번에 20~25분정도씩 매일 또는 하루건너 한번씩 하며 총치료회수는 12~15번이다.

효능높은 시종호감탕은 전국 각지의 여러 료양소들과 병원들에 운반되어 사람들의 병치료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높은 축성술을 보여주는 정방산성

정방산성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정방산의 험한 산세를 리용하여 쌓은 고려시기의 돌성이다.

이곳에는 조선민족의 애국심과 높은 축성술이 깃들어 있다.

고려시기에 처음 쌓았는데 1637년에 크게 개축되었다. 둘레는 12km이다. 조선시대안일대에서 남북으로 통하

는 기본토로를 막아선 황해도지방의 제일가는 요새로 일러왔다.

성벽의 대부분은 바깥면에만 돌을 대는 외면축성방법으로 쌓았고 골짜기를 건너간 남문부근의 성벽은 량쪽에 다 돌을 대는 량면축성방법으로 쌓았다.

높이는 대체로 5~6m이고 남문이 있는 남쪽에는 10여m나 되는 높고 웅장한 성벽을

쌓았다.

성벽웃면에는 높이 약 1.3m의 성과가 있고 그거에 약 2m간격으로 총, 포를 쏘는 구멍이 나왔다.

성안에는 병실터와 무기창고터, 식량창고터 등 건물터들이 남아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성안에 못 4개, 우물 7개, 사찰 48개가 있었다고 한다.

사찰인 성불사와 돌담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1592년 임진조국전쟁때의 병부대들은 정방산성을 근거지로 하여 황주, 봉산일대를 넘나들면서 왜놈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다.

오늘 정방산성은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재보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고구려 화가 담징 (2)

글 리성덕, 그림 김영희

가을이 깊어가고있었다. 담징이 범포사에 온지도 어느덧 두해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범포사의 나무잎은 두번 지고 두번 다시 피었고 이제 세번째 지려고 한다.

주변의 뉘엿뉘엿한 아산의 낯은 나무들이 누룩누룩도 해지고 불꽃불꽃도 해지는것을 바라보는 담징의 마음은 어느덧 먼 북쪽에 두고온 고국, 고구려로 하여없이 달려가고있었다.

저 대동강기슭의 아름다운 도읍지 평양성, 모란봉과 대성산의 나무잎도 지렷듯 붉게 물들었으리라.

소나무수림속으로 천천히 저녁노을빛이 스며들고있었다.

감탕노을을 등뒤에 받으며 슬며 한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키낮은 짙푸른색을 헤치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린다. 담징의 깊은 생각을 깨뜨릴가보아 매우 저어하는 기색이었다.

《오-법정!》 담징은 걸터앉았던 바위들에서 일어섬부 부르짖었다.

법정은 나무가지에 걸린 가사자락을 잡아당기며 매우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여기 계시었구려. 해중이 보이시잖아.》

법정은 담징의 어두운 얼굴을 근심스럽게 살펴본다. 《담징대사,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게 아니시오?》

《이 한몸이야 불편한들 무슨 일이 있겠소.》 담징의 눈길은 어느새 숙연한 빛을 띠고 먼 북서쪽으로 향하였다.

법정은 담징의 피로운 마음을 알고도 남았다. 《그와 비슷한 심정은 그사신도 체험하고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도 법정은 왜 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금당벽화를 그리겠노라고 약속한지도 1년이 가까와오는데 아직도 손에 붓을 들지 못하는 저 담징대사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승적에도 없는 건달승이 아닌가, 체색이나 종지, 먹 만드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던 건달승이 분명하다. ...

이런 소리를 벌써 여러번 들은 법정은 지금 담징에게 어떤 붓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권고하고싶어 찾아온것이였다.

근엄한 표정으로 이윽히 서있던 담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건달승이란 말은 열백번도 들었지만 제 나라를 모르는 중이란 말은 죽어도 듣지 못하겠소. 내 나라 대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을 담징임을 대사도 부디 알아주소.》



이 순간 법정은 두해전에 부두가를 떠나는 뚝배기에서 가사자락을 날리며 못박힌듯이 서서 북녘을 우러르던 담징의 거룩한 모습이 다시 보이는듯 하였다.

그리고 그 언젠가 그와 함께 고달픈 먼길을 걸을 때 들꽃이 활짝 핀 산등을 넘으며 《우리는 고구려사람이다. 그러니 부처를 믿어도

와 자부심을 알고도 남음이 없었다. 백제와 신라의 여러 절을 순례하면서 고구려의 웅건한 불교예술의 묘미를 가르쳐주기를 1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고 일본승려들과 공인들에게 종이와 채색, 벽제조법을 배워주고 고구려의 발전된 기술로 왜나라의 문화에 밝은 빛을 던져주기를

의 2년! 짧은 기간이 아니였고 적은 일들이 아니였다. 더우기 얼마전 전제라는 기계대들을 만들어 일본사람들을 경탄시키던 일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물의 힘으로 제철로 돌아가며 땅질을 하는 전제를 보던 일본원주민들은 담징을 새로 온 고구려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존경과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짧지 않은 나날들을 함께 보내면서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법정은 담징의 천재적인 재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2년이 되어오도록 담징을 보기가 안라까웠고 잠시나마 왜승들의 뒤소리를 듣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두사람은 어느새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는 수림속을 벗어선와 범포사로 향하였다.

베-베- 새들이 깃을 찾아 분주히 날아가고 우수수- 저녁바람이 소나무가지들 흔들며 불어지나고있었다.

그날밤, 금당안 찬란한 불단앞에는 불이 밝았다. 금당의 화려한 금빛장식이 너울거리는 불길줄 받아 더욱 활활 타오르듯 하는데 곳곳에서 왜승들의 목탁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들려왔다.

담징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

았다. 그러다가 어느결엔가 잠결인듯도 하고 현실인듯도 한 꿈의 세계에 파묻혀 들어갔다. ...왜승들이 담징을 무섭게 쫓아오고있었다.

검은 장삼자락을 독수리날개처럼 펼쳐지며 달려드는 왜승들의 눈자위에는 살기가 어리고 입에서는 짐승의 소리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온다.

《화공으로 가장한 건달패!》 《승적에도 없는 거지중!》 담징은 온몸이 격분으로 불화르처럼 달아올랐다. 그러나 눈썹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발광하는 왜승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금당안밖의 벽면을 바를 때부터 보아왔지만 알둔하고 우매한 그들이였다. 《모래에 수사(풀이름)를 섞어 바르거라.》 하면 그저 허리를 갑작거리며 《하이, 하이》 했고 《아마와 풀을 섞어 바르거라.》, 《백토를 칠하거라.》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알려주어야 할바를 알던 그들이였다.

그러나 어느때에 그 강한 시기심과 야비하고 경박한 본심을 감출수 없어 이렇게 야료를 부리는 무리를 눈아래 굽어보는 담징의 마음속에서는 울분과 수치의 세찬 물결이 흥수치고있었다.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솟고 가슴이 저리고 숨이 막혔다. ...

우리 민족의 전통부식물 건넵이젓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젓갈 문화가 특별히 발달되어왔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 온 오랜 재물에 그것을 담그는 방법과 다양한 종류의 향기를 가지고있어 식욕을 돋우며 비라민, 단백질, 칼시움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히 들어있으므로 건강에도 아주 좋다.

그중에서도 건넵이젓은 예로부터 평안도를 비롯한 서해안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즐겨먹어온 젓갈로 알려져있다.

건넵이젓은 새끼새우모양의 갑각류로서 우리 나라의 서해와 동해에 퍼져있다.

건넵이젓과 관련한 기록은 조선봉건왕조시기 편찬된 여러 력사문헌들에 남아있다. 문헌들에는 건넵이젓이 황

해도에서 지방공물로 바친것의 하나라는 내용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품으로 되었다는 내용의 기록들이 있다.

그밖에도 민족음식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 건넵이젓을 담그는 방법과 다양한 종류의 향기를 가지고있어 식욕을 돋우며 비라민, 단백질, 칼시움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히 들어있으므로 건강에도 아주 좋다.

그중에서도 건넵이젓은 예로부터 평안도를 비롯한 서해안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즐겨먹어온 젓갈로 알려져있다.

건넵이젓은 새끼새우모양의 갑각류로서 우리 나라의 서해와 동해에 퍼져있다.

건넵이젓과 관련한 기록은 조선봉건왕조시기 편찬된 여러 력사문헌들에 남아있다. 문헌들에는 건넵이젓이 황

유 모 아 지 나 친 열 성

주인: 《애, 래일은 일찍 일어나거라. 30리밖에 있는 읍읍 좀 갔다와야 할 일이 생겼다.》

하인: 《음에 가라시기에 밤도 안먹고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튿날 새벽 하인을 음에 보내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점심때가 지나서야 허덕덕 돌아오는지라.

주인: 《너 오늘아침에 읍에 가라고 했는데 대체 어디 갔었느냐?》

하인: 《음에 가라시기에 밤도 안먹고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주인: 《말도 듣기 전에 갔으면 대체 읍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단 말이나?》